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2001년 6 월

2001년 6 월

2001년 6 월

2001년 6 월

2001.6 2001.6 2001.6 2001.6 2001.6 2001.6

LG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1년 6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31
제3장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 45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55

부록

경제정책정보 ····· 67
주요경제통계 ····· 72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이 인 실
연 구 위 원	배 상 근
선 임 연 구 원	김 주 호
	김 창 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 : 수출신장세 둔화와 설비투자 감소로 성장세 큰 폭 둔화

■ 2001년 1/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수출의 신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7% 증가에 그침.

· 국내총소득(GDI)은 수출품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의 악화로 0.6% 증가에 그침.

· 계절변동조정(S.A.) 실질GDP는 전분기대비 0.3% 증가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산(GDP)	10.9	12.6	9.7	9.2	4.6	8.8	3.7
(계절조정)	(10.9)	(1.6)	(1.6)	(2.4)	(-0.4)	(8.8)	(0.3)
민간소비	11.0	10.8	8.9	5.7	3.2	7.1	0.9
정부소비	1.3	1.5	1.1	0.5	1.8	1.3	-2.6
건설투자	-10.3	-6.8	-4.2	-3.5	-2.5	-4.1	1.4
설비투자	36.3	62.6	41.6	31.9	8.1	34.3	-7.9
총 수 출	15.8	27.1	21.4	22.5	16.4	21.6	8.4
총 수 입	28.8	31.6	20.6	22.4	8.2	20.0	-0.7
국내총소득(GDI)	8.9	4.6	2.4	3.2	-3.3	1.5	0.6

주 : 계절조정계열은 전분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생산활동 : 반등조짐 보이던 생산증가세가 4월 이후 다시 둔화

■ 1월을 저점으로 반등조짐을 보이던 생산활동지표들이 4월 이후 다시 둔화

· [생산] 4월중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전월(6.4%)에 비해 둔화된 5.7% 증가

· [출하] 4월중 출하는 내수출하의 증가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수출출하의 신장세가 대폭 둔화됨에 따라 4.0%의 낮은 증가세 지속

· [재고] 금년 2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5월 이후의 증가세 지속

· [평균가동률] 생산증가세 둔화로 4월중 평균가동률이 전월(74.8%)보다 소폭 하락

■ 4월 산업활동 지표의 악화는 반도체부문 부진이 가장 큰 요인

· 생산증가율 : 반도체 부문 : 32.1%(3월) → 10.2%(4월)
반도체 제외 : 0.8%(3월) → 4.2%(4월)
· 출하증가율 : 반도체 부문 : 18.0%(3월) → 5.0%(4월)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생 산	24.2	16.8	23.6	18.4	19.8	7.6	5.0	6.4	5.7
· 중화학	29.3	20.4	27.3	22.6	24.3	10.0	6.9	8.6	6.8
· 경공업	9.6	3.3	10.5	4.0	3.6	-3.8	-4.7	-3.5	-0.2
출 하	25.1	16.6	25.2	18.1	19.8	5.7	2.2	4.1	4.0
· 내 수	21.1	12.7	24.1	15.1	10.5	3.3	-3.0	-1.8	3.6
· 수 출	30.6	21.7	26.7	22.2	32.6	8.6	9.1	12.3	4.5
재 고(원계열)	2.1	16.2	10.2	9.6	13.4	16.2	15.2	15.2	17.1
· 계절조정	2.1	16.2	1.7	0.8	5.3	7.4	1.0	0.9	1.4
평균가동률(%)	76.5	78.3	79.4	78.8	79.9	75.0	74.6	74.9	74.6

주 : 재고는 기말기준이며 전월(분기)대비(%)
자료 : 통계청

고용 : 4월중 실업률 및 실업자수 하락

■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4월중에는 3월에 비해 크게 하락

- 실업자 : 84만 8천명(3월대비 18만 7천명 감소)
- 실업률 : 3.8%(3월대비 1.0%P 하락)
- 작년 11월(797천명, 3.6%) 이후 최저수준

■ 계절조정실업률도 전월대비 0.4%p 하락한 3.8%

- 작년 10월(3.8%) 이후 최저수준

<표 3> 고용관련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실 업 자 (실업률)	900 (4.1)	797 (3.6)	893 (4.1)	982 (4.6)	1,069 (5.0)	1,035 (4.8)	848 (3.8)
· 계절조정실업률	4.1	3.9	3.9	4.1	4.2	4.2	3.8

자료 : 통계청

소비 : 점차 회복조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위축세를 보이던 소비가 점차 회복조짐을 보임.

· 도소매판매 증가율이 2월의 1.6%에서 3~4월중에는 3.7% 증가

· 내수용소비재출하의 감소폭도 크게 완화

■ 5월중에도 유통업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소비의 회복조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상위 3대 백화점 매출, 증가세로 반전 : -7.8%(4월) → 5.0%(5월)

· 수도권 대형할인점 매출, 꾸준한 신장세 : 5.6%(4월) → 7.8%(5월)

· 지방백화점 매출, 회복기미 :
부산 : -5.6%(4월) → 3.5%(5월), 광주 : 0.5%(4월) → 7.5%(5월)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도소매판매	13.0	9.8	15.1	13.3	8.0	3.9	2.5	3.6	3.9
·도매	11.4	9.1	14.6	11.9	6.3	4.5	3.2	3.8	4.8
·소매	9.8	11.1	12.7	14.2	11.1	6.7	3.7	4.1	0.2
내수용소비재출하	21.1	6.4	17.7	13.5	-1.8	-1.7	-8.1	-8.3	-1.2
·내구재	48.0	5.1	35.4	21.6	-16.9	-10.6	-19.4	-20.1	-6.4
·비내구재	9.6	7.2	8.7	9.3	7.6	3.6	-0.8	-0.2	2.3

자료 : 통계청

투자 : 설비투자 부진 지속, 건설투자 회복 조짐

■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

- 설비투자추계가 1/4분기중 6.2% 감소에 이어 4월중에도 5.7% 감소
- 국내기계수주도 통신관련업의 발주부진으로 4월중 11.8% 감소

■ 건설투자는 소폭 회복세를 보임.

- 건설기성액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건설의 호조로 증가세를 지속
- 건축허가면적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수주는 공공부문과 민자유치부문의 도로, 교량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표 5> 설비 및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국내기계수주	30.9	11.7	15.6	8.0	7.0	17.3	3.7	19.9	-11.8
기계류수입액	33.5	40.6	64.9	57.3	53.5	1.8	-1.2	16.5	-32.2
설비투자추계	43.5	30.1	59.3	34.8	29.5	5.7	-6.2	-5.0	-5.7
설비용기계내수출하	32.3	37.5	65.0	43.9	39.1	12.6	-6.9	-7.2	-1.6
국내건설수주	0.8	15.1	70.9	15.9	7.9	-7.0	-25.3	-27.2	0.0
건설기성	1.2	-3.1	-6.4	-2.4	-3.1	-1.2	1.6	0.2	3.4
건축허가면적	42.3	11.8	90.6	35.6	33.4	-35.2	-14.0	-29.5	-17.6

자료 : 통계청

경기 : 회복세 주춤, 그러나 향후 회복국면으로 재진입 기대

■ 최근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상황은 수출부진으로 인해 2~3월중의 회복조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3월중 하락세를 멈추었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중 다시 하락

■ 그러나 선행지수의 증가세가 2월 이후 지속되고 있고 기업 및 가계의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중에는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선행지수의 전월비 증가율이 4월중 0.1% 증가, 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

· 소비 및 경기전망 조사결과, 기업과 가계의 심리지표 개선 움직임이 지속

<표 6> 선행지수 전월비 증가율과 소비·경기전망조사 결과

	2000년			200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선행지수 전월비증가율(%)	-0.4	-1.3	-0.8	-0.6	0.5	0.2	0.1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89.8	82.4	82.2	89.7	92.0	94.1	96.3	
소비자태도지수(삼성연)	41.2			43.1			45.3	
전경련BSI(종합경기전망)	91.8	81.0	68.0	62.7	83.0	102.4	107.7	115.5
한은BSI(제조업전망)	107			67			92	

주 : 통계청, 전경련, 한은의 기준치는 100, 삼성연의 경우 50

2. 대외거래부문

무역수지 : 4~5월중 흑자, 1/4분기보다 확대

■ 수출 감소세보다 수입 감소세가 더욱 커지면서 금년 4~5월중 무역수지 흑자는 1/4분기(20.9억달러)보다 확대된 30.7억달러 기록

· 수출입증가율 차이 확대 : 4.3%p(1/4분기) → 6.1%p(4~5월중)

<표 7>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연간	1~5월	3/4	4/4	1/4	4월	5월	1~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117.9	19.7	39.7	37.7	20.9	9.9	20.8	51.5
	수출	1,722.7	674.3	443.8	452.1	401.2	121.8	136.3	659.3
	증가율	19.9	26.8	26.5	6.1	2.2	-9.9	-6.9	-2.2
	수입	1,604.8	654.6	404.1	414.4	380.3	112.0	115.6	607.8
	증가율	34.0	48.4	35.8	16.2	-2.1	-16.1	-13.0	-7.1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 : 감소세 확대

■ 3월중 감소세(-2.0%)로 전환된 수출이 4~5월중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

<주요 수출둔화요인>

- 해외여건변화에 민감한 수출구조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특히 IT부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와 반도체 경기의 악화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2000년) : 미국(21.8%), 일본(11.9%)
  * IT부문의 수출비중 : 22.8%(96년) → 29.7%(2000년)

- 주요품목의 단가하락 지속

<표 8> 주요품목별 수출단가추이

	2000년			200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반도체(64MDram 현물, $/개)	5.81	4.16	3.22	3.19	2.80	2.34	2.40	1.61
철강(아연도강판, $/톤)	415	385	385	385	365	365	365	365
석유화학(LDPE, $/톤)	770	690	680	710	605	670	650	645

자료 : 산업자원부

■ 품목별 수출동향(1. 1~5. 20)

- 호조 : 자동차(3.6%), 일반기계(23.6%), 무선통신기기(12.0%), 선박(53.9%)
- 부진 : 반도체(-20.6%), 컴퓨터(-17.5%), 철강(-5.3%), 석유화학(-4.4%) 등

<표 9> 품목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품목명	2000년					2001년			
	1/4	2/4	3/4	4/4	연간<비중>	1/4	4월	5.1~20(5월추정)	1.1~5.20
반도체	17.4	47.0	64.9	24.7	38.0<15.1>	-10.1	-33.0	-47.4(-41.0)	-20.6
자동차	45.1	-4.6	23.6	19.7	18.3 <7.7>	1.9	17.5	-9.0 (4.0)	3.6
철강제품	21.8	22.3	4.2	-3.8	10.4 <4.4>	-2.4	-8.2	-15.6 (-9.0)	-5.3
석유화학	44.8	60.1	29.9	11.1	34.1 <5.5>	0.4	-6.9	-21.3 (-8.0)	-4.4
일반기계	32.5	40.8	33.2	17.0	30.4 <4.2>	34.6	10.1	-1.6 (15.0)	23.6
컴퓨터	119.8	75.1	60.2	-12.7	40.9 <8.4>	-13.1	-25.8	-27.3(-32.0)	-17.5
무선통신기기	84.6	39.4	41.9	44.4	49.9 <4.7>	14.9	5.2	9.1 (20.0)	12.0
가정용전자	42.0	17.2	14.5	4.6	18.5 <4.4>	-2.9	-7.7	-10.4 (-5.0)	-5.0
선박	44.2	7.5	32.6	-12.2	9.9 <4.8>	76.2	-20.3	141.4 (84.0)	53.9
섬유직물	20.2	14.5	7.1	-1.3	9.4 <5.8>	-4.5	-10.3	-9.4 (-8.0)	-6.8
섬유제품	10.3	7.9	2.9	-4.6	3.7 <3.5>	-12.5	-16.6	-9.6 (-8.0)	-13.2
타이어	3.6	-7.6	-8.5	-4.6	-4.4 <0.8>	-4.5	-5.8	-1.1 (-7.0)	-4.4

자료 : 산업자원부

■ 지역별 수출동향(1. 1~5. 20)

- 호조 : 중국(8.8%), 중동(3.0%), 중남미(16.2%)
- 부진 : 미국(-6.0%), EU(-3.0%), 일본(-4.5%), 아세안(-11.2%)

<표 10>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국가명	2000년					2001년			
	1/4	2/4	3/4	4/4	연간<비중>	1/4	4월	5.1~20(5월추정)	1.1~5.20
미 국	38.9	24.7	36.0	15.6	27.6<21.8>	-0.7	-9.9	-24.6(-9.0)	-6.0
E U	25.5	16.9	19.4	5.4	15.7<13.6>	3.5	-11.0	-20.4(-9.0)	-3.0
일 본	50.5	38.5	37.7	3.4	29.0<11.9>	-1.1	-11.8	-9.8(-7.0)	-4.5
아세안	21.0	20.1	24.0	-4.2	14.2<22.6>	-9.4	-20.3	-6.3(-4.0)	-11.2
중 국	37.2	37.3	44.4	23.1	34.9<10.7>	10.4	13.0	-4.2(10.0)	8.8
중 동	29.3	20.5	21.4	6.6	18.6 <4.4>	6.2	-3.5	-3.4 (2.0)	3.0
중남미	23.6	7.3	22.9	-12.7	8.4 <5.4>	29.8	-16.3	13.8(20.0)	16.2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4~5월중 두자릿 수 감소세 지속

■ 설비투자 감소와 수출경기 위축으로 수입감소세가 더욱 확대

- 금년 1/4분기중 2.1% 감소한 수입이 4~5월중에는 두자릿 수의 감소율을 보임.

■ 용도별 수입동향

- 원자재와 자본재수입(4~5월중) : 감소세가 1/4분기보다 확대
- 소비재 수입(4~5월중) : 1/4분기의 회복조짐에서 다소 주춤한 상태

<표 11>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1~20(5월추정)	1.1~5.20
증가율	원자재	34.0	-3.5	12.7	-4.8	-12.0	-8.6(-8.0)	-3.1
	자본재	35.8	0.5	-3.8	-17.6	-25.6	-29.1(-23.0)	-14.9
	소비재	26.7	4.9	3.0	7.9	4.5	5.1(4.0)	5.2
비중	원자재	50.8	52.4	55.5	51.9	52.4	42.8(54.0)	54.0
	자본재	40.0	38.1	36.2	37.9	36.3	34.7(35.0)	34.7
	소비재	9.3	9.5	8.3	10.2	11.2	11.3(11.0)	11.3

자료 :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 경상수지 흑자 지속, 자본수지 적자 지속

■ 경상수지는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지속(1~4월중 48.1억달러)으로 1~4월중 37억달러의 흑자 시현

■ 자본수지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IMF지원자금 조기상환(1~4월중 32.4억달러) 등의 영향으로 1~4월중 52.9억달러의 적자 시현

<표 12>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단위 : 억달러

	2000년				2001년			
	연간	1~4월	3/4	4/4	1/4	3월	4월	1~4월
경상수지	110.4	7.9	36.5	33.2	30.7	18.1	6.3	37.0
상품수지	166.0	29.6	54.1	41.6	34.6	20.8	13.5	48.1
서비스수지	-39.7	-11.2	-12.2	-10.2	-5.5	1.0	-1.1	-6.6
소득수지	-22.0	-14.6	-6.2	1.0	0.5	-4.2	-6.6	-6.1
경상이전수지	6.2	4.1	0.8	0.8	1.1	0.4	0.5	1.6
자본수지	117.3	118.8	4.7	-24.2	-37.1	-14.8	-14.8	-51.9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물가 : 5월 들어 안정세

■ 4월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물가가 5월 들어 안정세를 보임.

· 소비자물가 : 금년 1~4월중 월평균 0.6%증가율(전월비)을 보였으나 5월중에는 전월 수준에서 보합

· 생산자물가 :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으나 금년 5월중에는 전월비 0.1% 하락

<표 13>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1.5	1.4	3.2	2.9	2.3	4.2	4.4(0.6)	5.3(0.6)	5.4(0.0)
근원인플레이션	0.8	1.4	2.4	2.9	1.9	4.2	4.2(0.5)	4.5(0.3)	4.7(0.3)
생산자물가	2.2	1.9	2.7	1.6	2.1	2.5	2.8(0.4)	3.3(0.2)	3.4(-0.1)

주 : ( )내는 전월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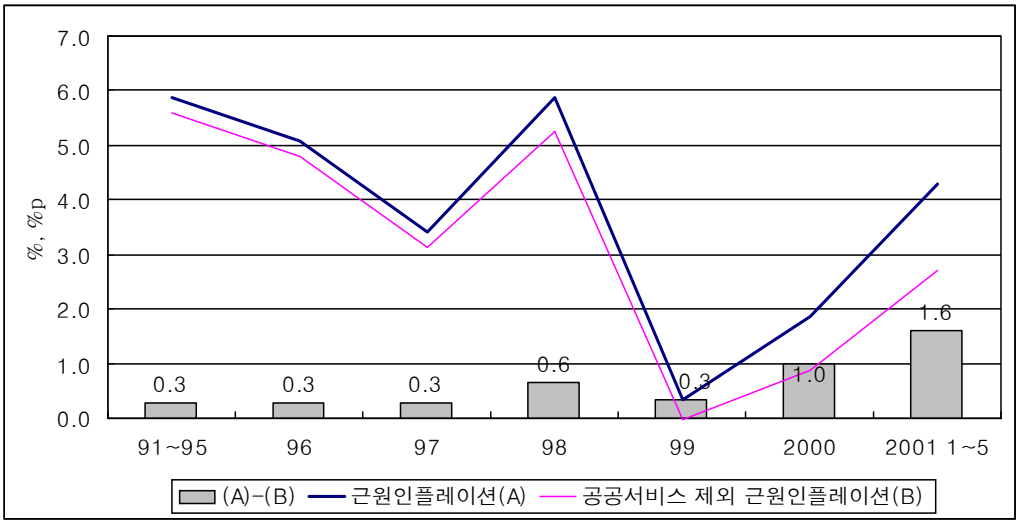
■ 최근 소비자물가의 급상승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에 기인한 것임.

· 소비자물가는 1~5월중 전년동기비 4.7% 상승하였는데 공공서비스의 기여도가 1.8%p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에 따라 근원인플레이션(한국은행의 물가관리목표 대상지수)과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의 차이가 크게 높아졌음.

· 90~99년중에는 평균 0.3%p에 불과했던 차이가 2000년에는 1.0%p로 그리고 2001년 1~5월중에는 1.6%p로 크게 확대됨(<그림 1> 참조).

<그림 1> 근원인플레이션과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4. 통화·금융부문

통화정책 : 물가상승압력으로 2월이후 단기금리 현 수준 유지

- 통화당국은 지난 2월 0.25%p 단기금리 인하 이후 물가상승 우려감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

- 1월중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수신 증가로 8.2%까지 상승하였던 M3증가율은 3월들어 7.9%로 하락

• 금년 들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M2 및 MCT+ 증가율은 전년동월의 높은 통화수위의 영향으로 5월중 각각 11.0%와 15.3%를 기록

<표 14> 주요 통화총량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본원통화	-7.2	12.1	24.4	21.4	19.0	16.8	14.7	11.3	15.1	8.6	11.4	11.2	11.0
M2	19.0	27.9	37.8	34.9	30.4	28.3	25.5	24.5	25.9	20.4	18.1	15.7	15.3
MCT	7.5	7.7	17.5	15.7	13.9	13.3	11.8	12.0	13.1	10.2	9.5	8.4	9.2
MCT+	7.4	5.3	18.5	16.8	15.4	15.4	13.8	14.1	15.5	12.6	11.7	11.0	11.0
M3	13.9	11.4	4.9	5.3	6.2	6.7	6.6	6.7	8.2	8.4	7.9	-	-

주 : 1) MCT+=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호조

■ 1/4분기중 3조 7,800억원 증가하였던 은행대출이 4월과 5월중 각각 6조 3,000억원과 7조원 이상 증가

• 5월중 대기업 대출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은 우량은행간 대출경쟁으로 인해 5월중 각각 2조 5,000억원, 4조 6,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 확대

<표 15> 은행대출(신탁포함)추이[1)]

단위 : 증감액, 억원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4월	5월
은행대출	126,390	213,133	162,125	73,031	37,808	63,470	70,663
대기업대출	36,044	29,672	29,394	-22,608	21,042	4,735	-1,963
중소기업대출	27,526	68,105	47,156	19,206	11,711	18,039	25,406
가계대출	46,145	94,609	50,009	72,818	38,295	34,020	46,171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 포함
자료 : 한국은행

■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은 금년들어 순증기조로 전환하였으며 5월에도 1조 1,750억원 증가

• 기업의 저금리 자금조달원 중 하나인 CP발행은 투신사 MMF 수신고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주식발행도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유지

<표 1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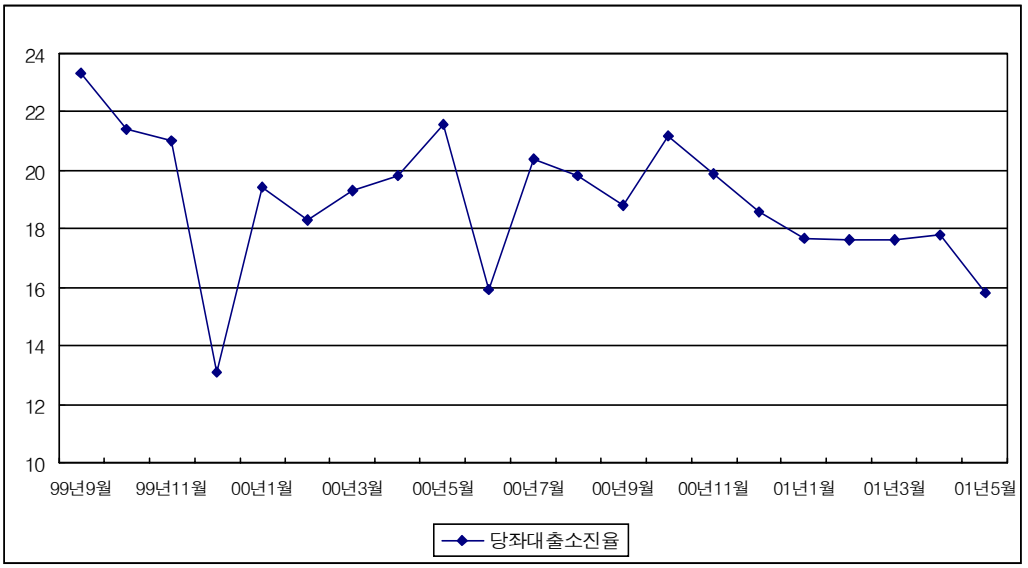
단위 : 기간중 증감, 억원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회사채발행(순)[1]	-41,315	-24,520	5,578	-45,584 (-87,365)	6,729 (831)	33,744 (13,130)	12,689 (4,242)	13,1877 (167)	11,750 (7,892)
CP발행(순)[2]	89,207	-70,952	25,061	-48,839	64,982	-2,238	1,072	15,627	4,895
주식발행[3]	20,636	37,727	34,757	19,599	789	702	2,987	4,077	2,854

주 : 1)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 )내는 Primary CBO 편입분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쌍용양회 전환사채 제외
2)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 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5월중 15.8%까지 하락

(그림 2)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추이



주 : 시중은행 기준, 12월은 25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대우계열사 등 旣부도기업의 부도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국어음부도율은 4월중 전월의 0.34%에서 0.28%로 하락

• 부도업체수는 전월(496개)대비 43개가 감소한 453개로 91년 6월(413개) 이후 가장 적은 수준

<표 17>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어음부도율	0.33	0.30	0.22	0.63	0.27	0.32	0.31	0.34	0.28
서울	0.34	0.30	0.21	0.64	0.25	0.32	0.32	0.37	0.29
부도업체수	22,828	480	606	646	684	532	497	496	453
서울	2,559	181	221	266	250	203	202	175	116
신설법인/부도법인[1)]	12.4	12.5	11.6	9.8	10.1	11.9	14.1	19.7	16.4

주 : 1)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 심화

■ 금년 들어 경제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

• 1~2월중 자금이 은행권에서 대거 이탈하여 투신권으로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장기상품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2월 하순 이후 단기성예금으로 이동하는 금융자산의 변동성 심화

<표 18>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2000년	200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말잔액
은행계정	61,811	1,996	15,928	36,835	80,229	59,367	4,317,058
실세요구불	29,992	-26,590	3,233	-3,688	5,589	-4,638	262,970
저축성예금	15,437	17,653	303	39,624	65,673	37,973	3,665,173
(정기예금)	-31,453	39,162	-17,500	7,637	7,924	11,415	2,006,764
(수시입출식)	50,735	-36,373	2,589	22,136	41,708	14,216	1,061,332
<MMDA>	10,953	-18,237	-9,817	16,656	21,404	15,569	384,464
CD+RP+표지어음	16,382	10,933	12,392	899	8,967	26,032	388,915
금전신탁	-49,026	-619	30,163	5,518	-8,807	-15,074	768,111
추가금전	1,999	8,203	22,719	6,597	-7,338	-15,087	62,237
단위금전	-4,322	-2,337	-2,858	1,354	-529	-109	21,314
신종적립	-14,831	-13,099	-4,788	-6,183	-3,895	-5,483	129,184
특정금전	-11,251	4,620	-3,260	-2,711	3,476	8411	172,193
기타	-25,402	-10,993	-8,181	-7,525	-4,784	-4,692	309,312
투신사	-73,355	74,336	66,638	37,675	-129,179	31,193	1,413,585
단기채권투자신탁	-3,446	5,047	19,243	7,780	3,387	203	201,854
장기채권투자신탁	22,911	3,503	17,530	11,211	4,532	2,960	434,740
MMF	-52,441	97,307	34,481	33,521	-125,961	32,397	339,688
주식투자신탁	12,306	886	4,309	-736	770	778	46,622
혼합투자신탁	-52,685	-32,407	-8,925	-14,100	-11,907	-5,145	390,681
종금사	-28,552	15,577	-6,862	-14,526	14,260	-4,439	108,654
체신예금	15,275	8,363	5,557	19,444	2,689	3,077	277,037
증권사고객예탁금	-10,218	26,594	-5,564	-5,161	10,083	3,747	90,275
주식형뮤추얼펀드	-8,553	-6,846	308	4,346	2,552	3,415	26,001

자료 : 한국은행

■ 4월 이후 엔화약세현상 진정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위축된 채권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

• 3월 중순에는 원화약세에 대한 외환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하면서 채권시장이 환율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였었음.

■ 국내 증시는 미연준의 금리인하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일정정도 유지됨에 따라 5월 이후 미국 증시 여건에 따라 6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

<표 19> 주가추이

	2000년			2001년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일
종합주가지수	821.22	613.22	504.62	617.91	578.10	523.22	577.36	612.16	601.14
코스닥지수	151.9	90.17	52.58	84.36	76.76	68.43	78.97	81.35	78.14
다우존스지수	10,448	10,651	10,787	10,887	10,495	9,879	10,735	10,912	11,090
나스닥지수	3,966	3,673	2,471	2,773	2,152	1,840	2,116	2,110	2,264

주 :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표 20> 외국인 주식 순매수추이

단위 : 기간중, 억원

	2000년			200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주식순매수	-3,277	6,730	4,903	29,635	3,589	833	652	459
거래소	-3,769	6,251	4,522	27,337	3,690	411	567	458
코스닥	492	478	381	2,298	-101	422	85	1

■ 주식 공급요인이 크지 않은 가운데 3월중 7조원대까지 하락하였던 고객예탁금 규모가 5월 들어 9조원대로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수급여건이 다소 개선

<표 21>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99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유상증자	173,858	11,294	16,584	8,396	5,665	3,317	1,943	1,163	182	440
기업공개	153,576	-	-	1,250	10,019	-	-	-	-	-
계	327,434	11,294	16,584	9,646	15,684	3,317	1,943	1,163	182	440
고객예탁금잔액	69,919	108,135	100,765	75,064	60,576	87,170	81,606	76,444	86,527	90,275
신용융자잔고	6,828	3,865	3,377	2,266	1,352	1,441	1,503	1,511	1,433	1,581

주 : 고객예탁금잔액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장단기 지표금리 : 수급사정 호전으로 5월 이후 하락세 지속

■ 2월 중순 이후 금리 낙폭 과대 및 원·달러환율의 급등에 따르는 물가상승의 우려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금리가 5월 이후 원·달러 환율 안정과 더불어 하향 안정세를 지속

<표 22>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리(%)

	99년	2000년			2001년				
	1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콜(익일)(A)	4.71	5.37	5.31	6.01	5.27	5.05	4.94	5.01	5.00
CP(91일)	7.47	7.24	7.26	7.26	6.66	6.20	6.06	6.19	5.98
국고채(3년)(B)	9.22	7.64	7.16	6.70	5.68	5.43	6.31	6.80	6.17
회사채(3년)(C)	9.85	8.59	8.35	8.13	7.38	6.77	7.69	8.05	7.37
B - A(%p)	4.51	2.27	1.85	0.69	0.41	0.38	1.37	1.18	1.17
C - A(%p)	5.14	3.22	3.04	2.12	2.11	1.72	2.75	3.04	2.37

주 : 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 중장기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분위기가 4월 중순 이후 가시화됨에 따라 위험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표 23> 신용등급별 회사채 및 CP 금리격차 추이

단위 : %p

	2000년			200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회사채[1]								
BBB+[2]	1.42	1.44	1.43	1.43	1.43	1.38	1.35	1.34
BBB-[3]	3.17	3.52	3.69	4.18	5.03	4.76	4.69	4.28
CP[4]								
A2	0.18	0.18	0.18	0.15	0.13	0.13	0.13	0.12
A3	0.82	0.85	0.88	0.84	0.80	0.77	0.75	0.74
B	4.28	4.32	4.35	4.32	4.25	4.23	4.21	4.21

주 : 1) 3년물기준
2), 3) 우량기준물(AA-)과의 금리격차
4) 우량기준물(A1)과의 금리격차
자료 : 한국은행

환율 및 외채 현황

■ 엔·달러환율의 안정과 함께 정부의 국책은행을 통한 외환시장 직접개입 이후 원·달러환율은 점진적 하향 안정세를 시현하고 있음.

• 4월초에는 엔·달러환율 불안정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원·달러환율이 199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1,365원대로 상승했었음.

<표 24>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99년	2000년	2001년					
	12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7일
원/달러[1]	1,138.00	1,264.50	1,259.00	1,250.80	1,327.50	1,319.7	1,282.7	1286.1
	(+5.8)	(-10.0)	(+0.4)	(+1.1)	(-4.7)	(-0.6)	(-2.1)	(+0.3)
엔/달러[2]	102.23	114.41	116.52	117.35	126.18	123.6	119.19	120.16
	(+11.0)	(-10.6)	(-1.8)	(-2.5)	(-7.5)	(-2.1)	(-3.7)	(+0.8)
원/100엔[3]	1,111.17	1,101.78	1,081.62	1,072.73	1,057.07	1,067.7	1,073.39	1,070.25
	(-4.6)	(+0.9)	(+1.9)	(+2.7)	(+4.2)	(+1.0)	(+0.5)	(-0.3)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종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 )내는 전년말대비 절상(+), 절하(-)율(%)

■ 총대외채권은 2001년 3월말 현재 1,619억달러로 순채권 규모는 321억달러로서 1999년 9월 이후 순채권 기조로 전환된 이후 전월보다 다소 축소

<표 25> 총대외지불부담과 채권 동향

단위 : 억달러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말	연말	연말	2월말	3월말
총대외지불부담	1,487	1,371	1,363	1,317	1,298
장기외채	1,180	978	921	898	875
단기외채	307	392	442	418	424
(비중)	(20.6)	(28.6)	(32.4)	(31.7)	(32.7)
총대외채권	1,285	1,454	1,669	1,648	1,619
순채권	-202	83	306	331	321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세계경제 : 금년 3%, 내년 3.9% 성장 전망

■ IMF는 2001년 세계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일본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상존

■ 2002년에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이 3.9%로 높아질 전망

■ 2001년 세계 교역신장률은 2000년보다 크게 둔화된 6.7%에 그칠 것으로 전망. 2002년에도 6%대로 전망

<표 26>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000년	2001년	2002년
전세계	4.8	3.2	3.9
선진국	4.1	1.9	2.7
(미 국)	5.0	1.5	2.5
(일 본)	1.7	0.6	1.5
(유 로)	3.4	2.4	2.8
세계 교역량	12.4	6.7	6.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May,* 2001.

미국경제 : 경기둔화 지속

■ 2001년 1/4분기중 미국경제는 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전분기대비 1.3% 성장

• 설비투자(▽2.6%) 및 수출(▽4.6%)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소비(2.9%)는 증가세

<표 27>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계절조정, 연율,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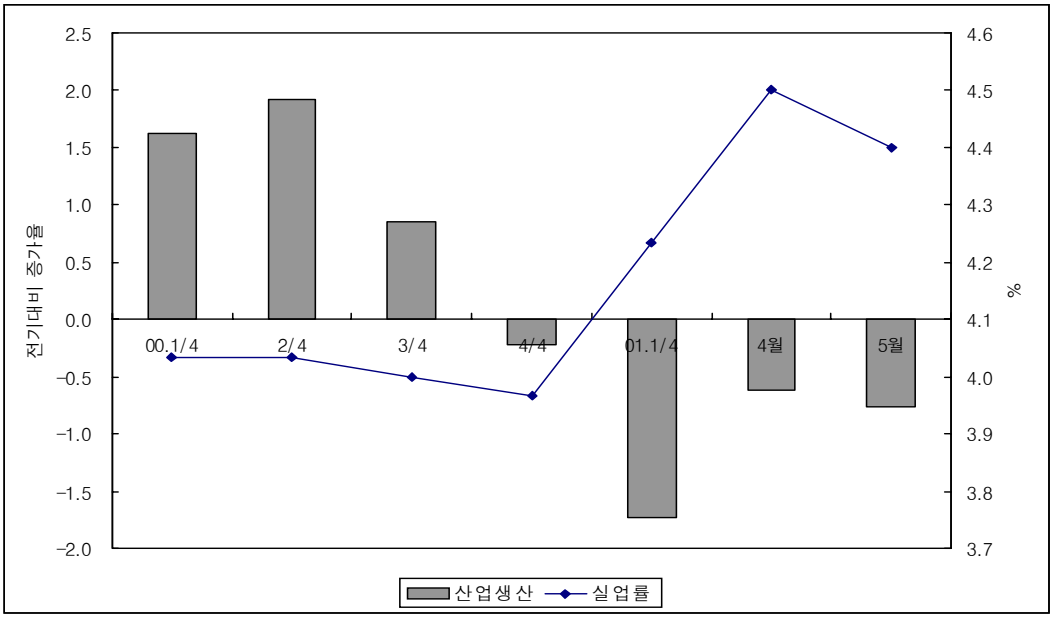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5.0	4.8	5.6	2.2	1.0	1.3
민간소비	5.3	7.6	3.1	4.5	2.8	2.9
민간투자	10.2	5.1	21.7	1.8	▽4.1	▽13.3
소비자물가	3.4	1.0	0.7	0.7	0.8	1.0
수출(십억달러)	1068.7	255.9	265.9	275.4	271.5	269.4
수입(십억달러)	1437.6	341.1	354.7	371.0	370.7	360.7

자료 : 상무성, 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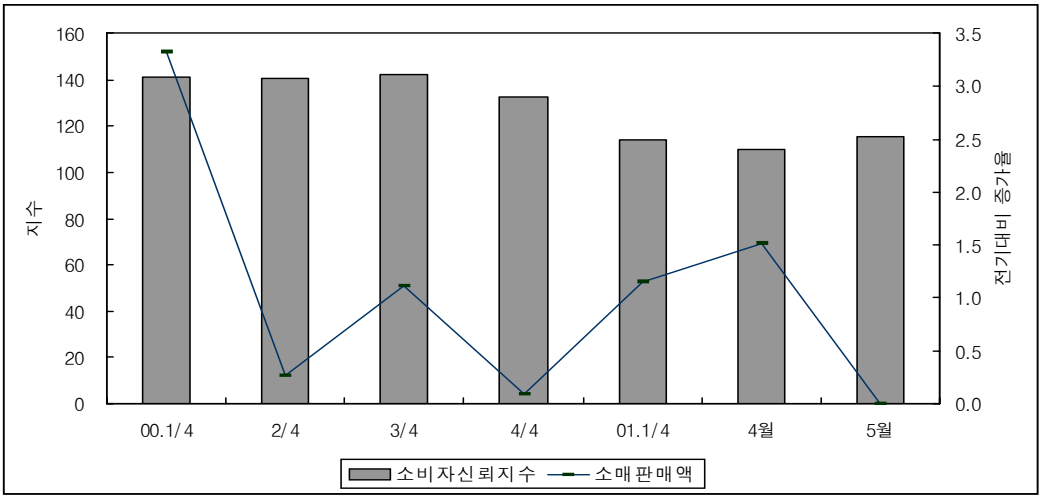
■ 2/4분기 들어서도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부진 지속

- 산업생산은 4, 5월에 각각 전월대비 0.6%, 0.8% 감소
- 실업률은 4월에 4.5%까지 상승(5월 4.4%)
- 소비는 4월 이후 소매판매액이 증가로 돌아서고 소비자신뢰지수가 반등하는 등 호조세 지속

<그림 3> 미국 산업경기 추이



<그림 4> 미국 소비지표 추이



■ 주요 전망기관들은 미국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01년 2%내외, 2002년 3%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인하 및 조세감면 등 경기부양정책 효과의 가시화 기대

• 그러나 생산성 하락, 단위노동비용의 상승,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 지연요인 상존

<표 28>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시기	2001년	2002년
IMF	2001. 5	1.5	2.5
OECD	2001. 5	1.9	3.1
Deutsche Bank	2001. 6	1.5	2.6
J.P. Morgan	2001. 5	1.6	2.9
Salomon Smith Barney	2001. 5	2.2	3.8

일본경제 : 내수 및 수출부진 지속

■ 2001년 1/4분기중 일본경제는 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2% 성장

• 투자(▽1.8%) 및 수출(▽3.6%)은 감소세, 소비(0.0%)는 보합세

<표 29>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계절조정,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1.5	2.4	0.1	▽0.7	0.6	▽0.2
민간소비	0.5	2.0	0.1	0.0	▽0.6	0.0
고정투자	3.9	2.4	▽3.1	1.3	6.3	▽1.8
소비자물가	▽0.7	▽0.1	▽0.3	▽0.1	▽0.1	0.3
수출(천억엔)	495.3	118.6	122.2	126.5	128.0	121.4
수입(천억엔)	369.6	86.5	88.7	92.7	101.8	99.5

자료 : 경제기획청,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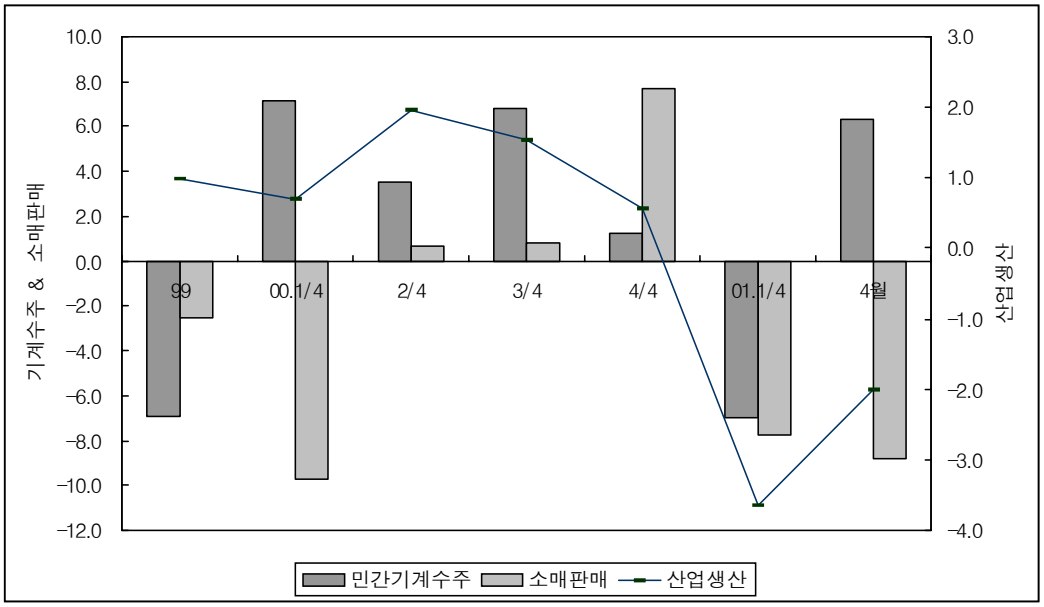
■ 일본경제는 4월에도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 감소하고 소매판매 및 수출이 각각 8.8%, 12.0%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 지속

• 민간기계수주는 4월중 6.3%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전체로는 0.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 회복전망도 불투명

• 5월중 동경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하는 등 물가하락세 지속

<그림 5> 일본경제의 최근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일본경제는 내수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전망

- 2001년 0.8% 내외, 2002년 1%대의 성장 전망
- 일본경제의 회복여부는 경제개혁보다는 미국경제의 조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

<표 30>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시기	2001년	2002년
IMF	2001. 5	0.6	1.5
OECD	2001. 5	1.2	0.7
Deutsche Bank	2001. 6	0.8	0.8
Goldman Sachs	2001. 6	0.6	1.3
JP Morgan	2001. 6	0.7	1.2

유로경제 : 경기둔화 조짐

■ 2001년 1/4분기중 유로경제는 투자감소와 수출둔화로 전분기대비 0.5% 성장

- 투자감소(△2.6%), 수출둔화(3.0%→0.1%), 소비부진(0.3%)
- 3월중 산업생산(▽0.2%) 및 소매판매(▽0.4%) 전월대비 감소

<표 31>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계절조정,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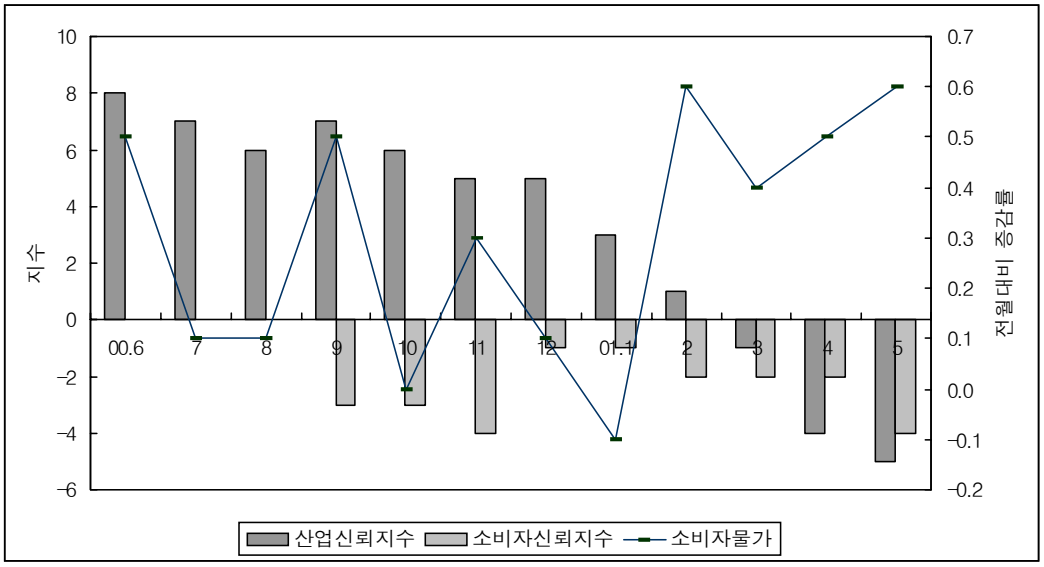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3.3	0.9	0.7	0.6	0.6	0.5
민간소비	2.6	0.7	0.9	0.2	0.2	0.3
고정투자	4.5	1.6	0.6	1.0	0.3	▽0.9
소비자물가	2.3	0.6	0.6	0.8	0.7	0.5
수출(십억유로)	1,004.7	229.9	247.3	250.2	277.3	257.3
수입(십억유로)	998.7	231.8	244.7	245.4	276.8	259.0

자료 : Eurostat, ECB

■ 2/4분기중 유로경제는 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하락폭이 커지는 등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

<그림 6> 유로경제의 최근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 유로경제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연간 2.5% 내외, 그리고 내년도 금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려울 전망, 미국의 경기회복에 기대

<표 32> 유로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시기	2001년	2002년
ECB	2001. 6	2. 2~2. 8	2. 1~3. 1
IMF	2001. 5	2. 4	2. 8
OECD	2001. 5	2. 5	2. 6
Deutsche Bank	2001. 5	2. 2	2. 5
IFO	2001. 4	2. 6	2. 6

2. 원자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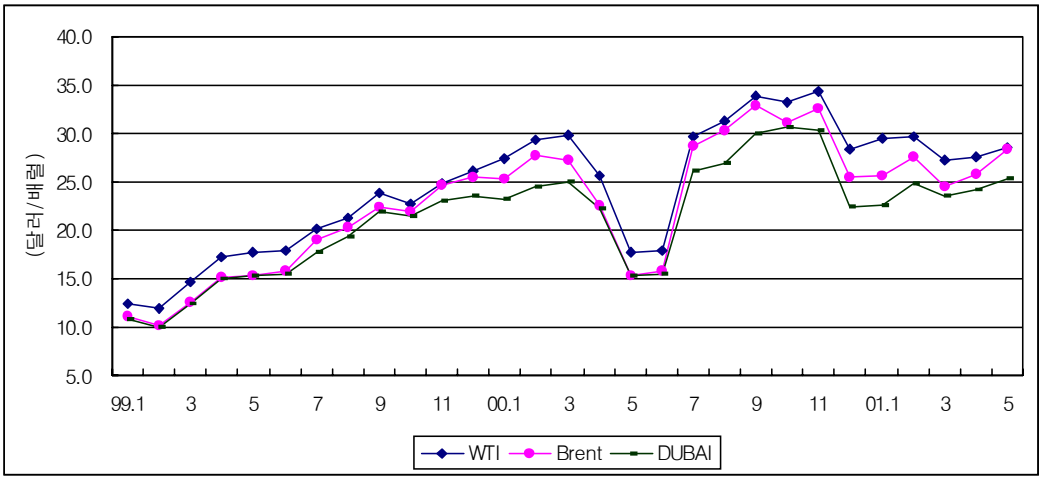
유가 : 강보합세 지속

■ 국제유가는 4월 이후 상승세 지속, 27~29달러 수준을 유지

• 이라크의 석유수출중단이 지속될 경우 현 수준에서 강보합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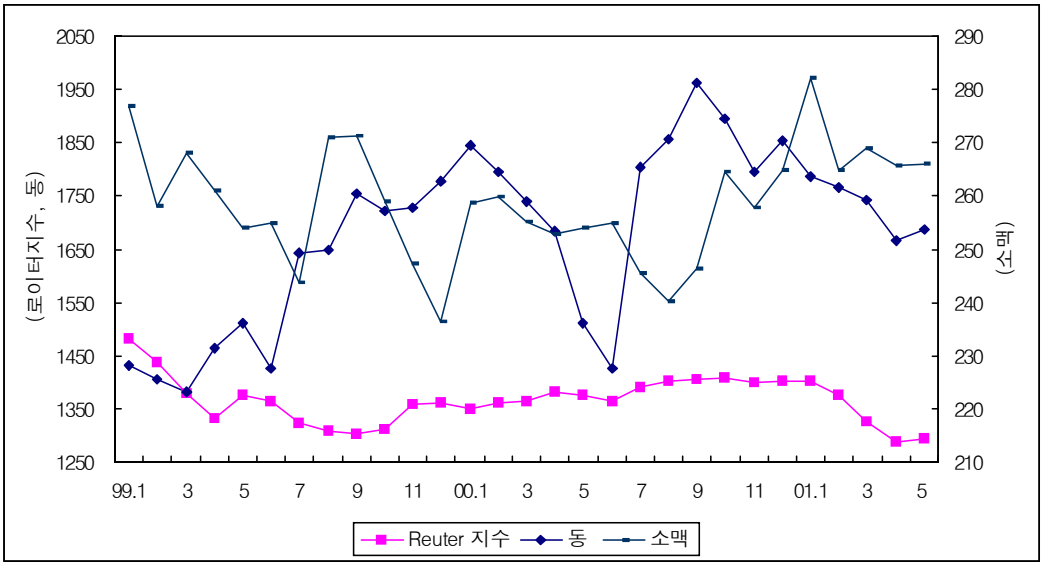
■ 소맥, 동 등 기타 원자재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지속

<그림 7> 국제유가 추이(월평균)



<그림 8>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지수, 동(달러/톤), 소맥(센트/부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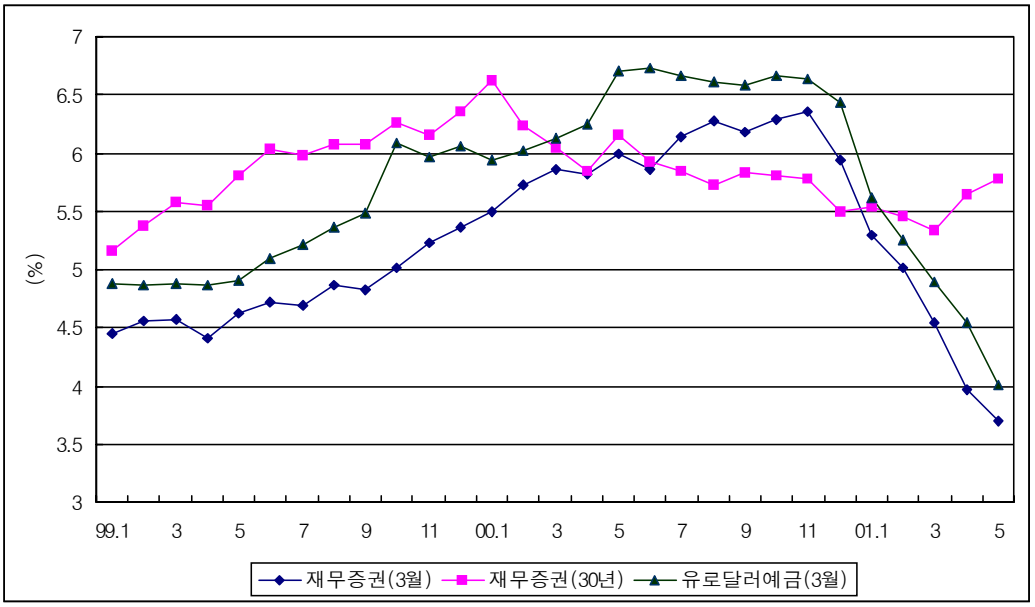
3. 국제금리 · 환율

장기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 단기금리는 하락세, 장기금리는 4월 이후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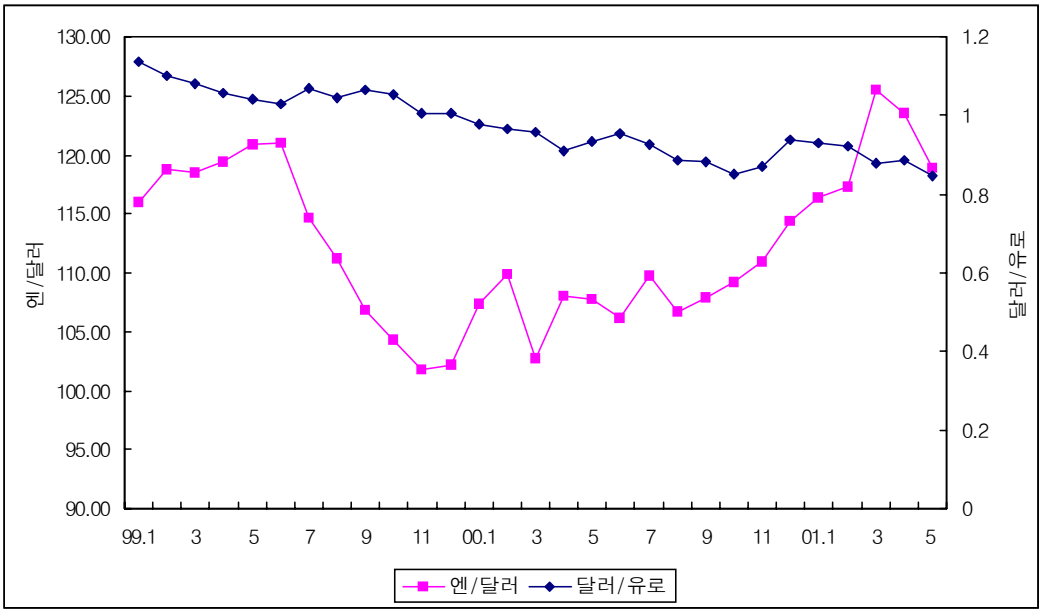
• 인플레 우려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
미재무증권(3월물, 30년물) 금리차 : 0.25%p(1월) → 2.08%p(5월)

<그림 9> 국제금리 추이(월평균)



■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지속

<그림 10> 주요 통화의 환율추이(기말 기준)



제 3 장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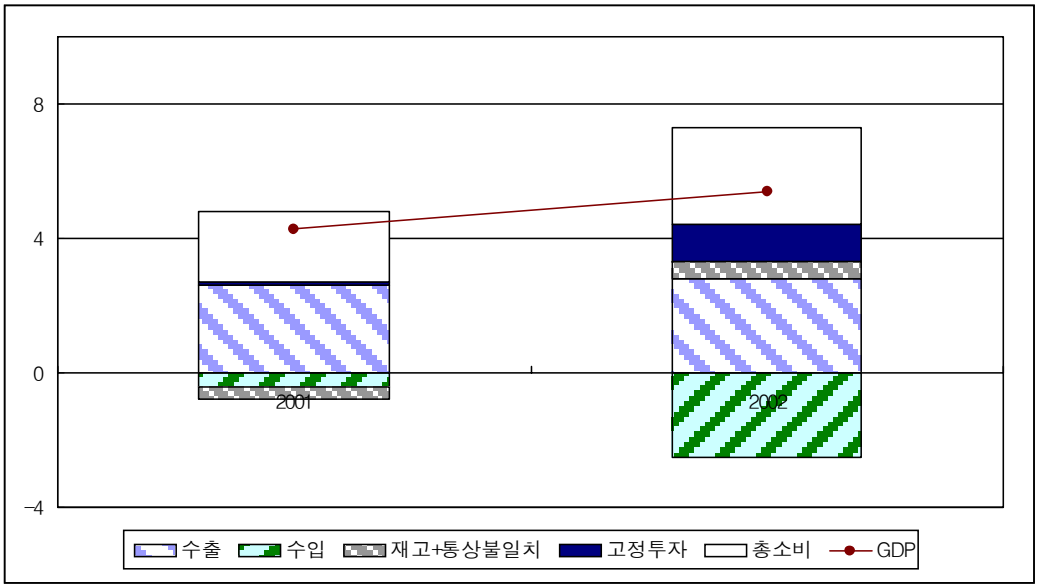
1. 실물부문

하반기 더딘 회복세 지속되나 내년 잠재성장세 회복

■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낮아진 내수 증가세와 올 1/4분기 이후 현재화된 수출감소에 기인하여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00년의 절반 수준인 4.3%에 그칠 전망. 금년 하반기 성장률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한 4.8%가 예상됨. 연말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추세는 내년으로 이어져 2002년에는 성장률이 5.4%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세 회복과 국내소비의 꾸준한 회복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재고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소비에 비해 투자의 기여도가 낮았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투자(재고포함)의 기여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성장내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그림 11> 참조).

<그림 11 > 최종수요부문별 성장 기여도



■ 최근 미국과 일본 경기의 둔화와 불투명해진 전망 때문에 우리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수출이 급증했던 작년에 대비한 연초 이후의 수출실적은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님.

• 작년 우리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와 36% 증가하였음. 따라서 금년 수출입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2년간 평균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실제로 금년 1~5월중 실적을 보면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함(수출 -2.2%, 수입 -7.1%).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흑자 폭은 작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

■ 대외여건의 향방과 그에 따른 수출실적 변화가 지난번 전망에 이어 이번에도 본원 전망의 가장 큰 downside risk 요인으로 남아 있음.

-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연초 이후 지속되어온 부양정책에 힘입어 연말 이전에 회복될 전망이지만 일본경제는 계속 침체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의 경기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외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대외여건이 유리하게 변화할 경우 순수출의 추가 증대가능성이 있는 반면 추가적인 악화가 있을 시에는 수출의 감소도 가능

■ 이번 전망은 암묵적으로 기업, 금융 및 기타부문의 구조조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구조조정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구조조정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단기에 가시화될 수 있어 경제전망을 어둡게 할 것임. 따라서 구조조정노력의 지속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 특히 지속적인 이익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우리 경제 중장기 전망에 제일 큰 downside risk 요인임.

- 이번 6월에 있었던 파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파업의 파급효과는 한국의 기업활동 여건에 결정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부각되어 잠재적으로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특히 해외투자유치와 대외신인도 제고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임.

- 노사분규는 이해집단의 속성상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음. 문제는 법적인 한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와 정부의 강제조정 등의 해결방안이 엄격히 이행되는가 하는 것임. 만약 정부가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뚜렷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의 해결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각인되어질 수 있음.

<표 33> 국내경제전망(2001～2002년)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 총생산	8.8	3.7	3.9	4.6	5.0	4.3	5.4
(제조업)	15.4	4.3	5.0	5.8	7.0	5.6	6.9
총소비	6.2	0.4	3.9	4.6	5.3	3.6	4.9
민간소비	7.1	0.9	4.5	5.2	6.1	4.2	5.5
고정자본형성	11.0	-3.8	-1.5	1.8	4.4	0.4	4.4
설비투자	34.3	-7.9	-4.4	3.0	9.6	-0.1	7.3
건설투자	-4.1	1.4	1.3	0.6	0.2	0.8	1.6
총수출	21.6	8.4	2.0	3.5	6.5	5.1	5.3
총수입	20.0	-0.7	-4.5	-1.0	8.0	1.0	7.2
생산자물가	2.0	2.5	3.3	3.1	3.0	3.0	2.5
소비자물가	2.3	4.2	5.3	4.1	3.8	4.3	3.0
경상수지	110.4	30.7	41.2	38.8	31.3	141.9	59.8
상품수지	166.0	34.6	55.3	50.3	40.1	180.3	101.1
수출	1,757.8	406.6	406.8	435.4	463.6	1,712.5	1,800.2
증가율(%)	21.1	-1.9	-7.7	-4.1	3.4	-2.6	5.1
수입	1,591.8	372.0	351.5	385.1	423.6	1,532.2	1,699.1
증가율(%)	36.3	-4.7	-11.0	-3.7	4.1	-3.7	10.9
서비스·소득·이전수지	-55.6	-3.9	-14.1	-11.5	-8.8	-38.4	-41.3
원화환율(기말, Won/$)	1,259.7	1,327.5	1,280.0	1,265.0	1,250.0	1,250.0	1,200.0
엔화환율(기말, Yen/$)	114.4	126.2	125.0	123.0	121.0	121.0	118.0
M3증가율(평잔, %)	5.7	8.2	8.5	7.9	7.4	8.0	8.0
회사채수익률(평균, 연%)	9.4	7.2	7.6	7.8	8.0	7.7	8.4

2. 물가부문

■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중 높은 물가상승세의 영향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을 상회하는 4.3%가 예상됨. 그러나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등 주요 물가상승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3%대로 낮아질 전망

• 연초 이후 농축산물가격, 공공요금, 교육비 등 일시적인 상승요인의 지속적인 발생과 1/4분기 말부터 가시화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 2/4분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5.3%까지 올랐음.

• 그러나 총수요위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의 증가추세는 물가상승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하에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물가상승의 원인에 관계없이 통화정책 수단을 경기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임.

3. 대외거래부문

■ 금년에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위축에 따른 수입의 대폭 감소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작년수준을 상회할 전망. 하지만 2002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의 빠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2000년 21%에 달했던 수출증가세가 2001년에는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000년 36%를 넘었던 수입증가세도 -3.7%로 감소할 전망임. 따라서 2001년 상품수지는 2000년보다 높은 180억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02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5.1%와 10.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상수지나 상품수지 모두 올해에 비해 크게 떨어질 전망.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각각 60억달러 및 10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4. 금융부문

장단기 금리 : 점진적 상승 전망

■ 콜시장에서의 단기자금 공급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금리는 금융기관들의 풍부한 단기유동성을 바탕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하반기중 장기금리는 대내외적인 불안요인 등의 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여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됨.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럽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

• 투자기회를 관망하는 부동자금 단기화 현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기관들의 채권매수세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다만 채권시장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채, 예보채, 통안증권의 분산 발행과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한은의 신축적 유동성 관리로 장기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희박함.

<표 35> 2001년중 장단기 금리전망

단위 : %

	2000년					2001년(E)					2002년(E)
	1/4	2/4	3/4	4/4	연간	1/4	2/4(E)	3/4(E)	4/4(E)	연간	연간
콜	4.96	5.08	5.07	5.30	5.09	5.13	5.00	5.10	5.20	5.11	5.30
회사채	10.1	9.9	9.0	8.4	9.4	7.2	7.6	7.8	8.0	7.7	8.4

주 : 기간 평균기준임.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대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4/4분기중 신용보강이 필요한 회사채가 집중되어 있어 주식 및 채권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정부의 '고수익채권 시장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13조원에 달하는 투기채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및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장불안은 하반기에도 가중될 전망

• 내년에도 구조조정 및 경기둔화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가운데 자금구조 단기화현상이 크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

환율

■ IMF 차입금 원금상환 등 달러화 자산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938.9억달러로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

<표 36>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12월	12월	12월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 15
외환보유고	204.1	520.4	740.5	836.5	906.7	925.3	940.8	954.2	953.3	944.4	934.8	936.3	938.9

자료 : 한국은행

■ 향후 미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임.

• 국내 상황은 수출감소, 외국인 직·간접 투자 감소 등 불안요인은 있으나 대규모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흑자추세 유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외환시장 수급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따라서 원·달러환율은 엔화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상하방 경직성을 가지며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전망

• 하반기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달러환율은 금년말 1,250원대에서 안정될 전망

• 그러나 원·달러환율이 국내상황보다는 대외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만약 대외요인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하반기중 일시적으로 원·달러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상존

<표 37>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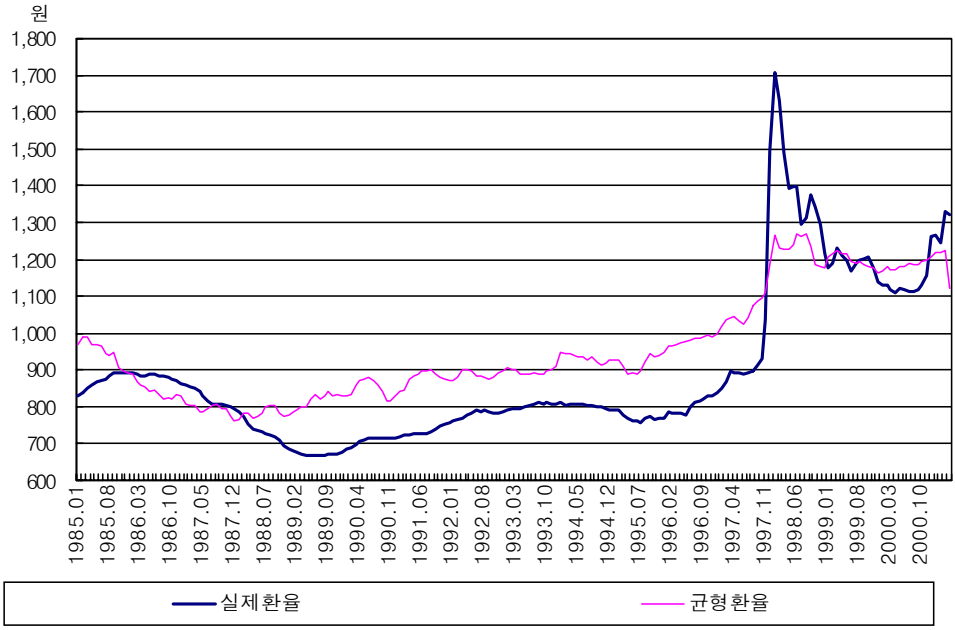
	99년	2000년				2001년(E)				2002년
		1/4	2/4	3/4	4/4	1/4	2/4(E)	3/4(E)	4/4(E)	
원·달러	1,138.0	1,108.3	1,114.8	1,115.0	1,259.7	1,327.5	1,280.0	1,265.0	1,250.0	1,200.0
엔·달러	102.2	102.7	106.0	108.2	114.4	126.2	125.0	123.0	121.0	118.0

주 : 기간말 기준

■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모형에 의한 실질실효환율 차원에서 원화의 적정환율은 작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실제환율은 금년 들어서도 급상승

• 작년 12월 이후 실제환율이 실질실효환율 기준(1985년 경제기준) 적정환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12> 실제환율과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가. 국내 경기는 회복 조짐이 다소 있으나 물가 및 대외 여건은 불투명

■ 작년 4/4분기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급락이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회복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움.

- 각종 BSI나 CSI가 개선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의 전원비 증가율이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생산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고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금년 1분기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였고 재정지출의 상반기 집중이 주효하여 예상에 비해 다소 높은 3.7%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나타냈음.

- 수출용 수입이 작년 전체 수입액의 50%정도를 차지하는 점, 최근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 미국경기회복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출전망은 다소 불투명함.

■ 작년 말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도입으로 실세금리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시중자금이 아직은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주식시장의 침체와 함께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이 활발하지 않아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아직 용이하지 않음.

- 또한 자금여력이 풍부한 은행권의 간접금융도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고 가계 및 일부 우량기업에 대출이 집중되어 기업전반에 대한 자금공급은 원활하지 않음.

■ 금년 초에 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의료서비스비 등의 공공서비스비의 인상으로 1분기 4.2%에서 2분기 5%대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물가상승은 수요측면이라기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주로 기인하여 총수요압력의 확대가 크지 않았지만, 이것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한편 최근의 가뭄이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유가가 계절적인 비수기가 지남에 따라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금년 상반기 침체상태에 있는 미국·일본·EU 경기의 조속한 회복이나, 반도체 가격의 급상승, 국제유가의 지속적 안정 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대외여건은 매우 불투명함.

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고갈

■ 현행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어 총수요진작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목표를 5~6%의 실질 경제성장률, 3%대의 물가수준, 3%대의 실업률로 잡고 있음.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거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통화신용정책 : 금리하향안정화 기조 유지와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 정착 미흡

-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유입이 크지 않고 신용경색으로 기업의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못함.

- 또한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있고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통상적인 거시정책 수단들이 고갈되고 있음.

■ 환율정책 : 어느 정도의 환율상승은 용인

- 금년 초 원화가치의 하락과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불안감 증대 등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였음.

- 현재 정부는 엔화가치의 약세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환율상승은 용인하고 있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수입물가의 상승이라는 물가불안의 요인이 됨.

■ 재정정책 :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의 상반기 집중 지출

- 재정의 상반기 집중 지출로 금년 1분기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을 함께 실현했음.

- 그러나 재정의 상반기 집중 지출로 향후 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 노동시장정책 :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구조는 악화

- 실업률은 지난 2월 5.0%를 고비로 하여 5월에 3.5%로 큰 폭으로 하락해서 실업자가 2월 107만명에서 5월 78만명으로 낮아져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구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정규직 채용을 기업이 꺼리고 있고, 포괄적 고용승계제에 따라 M&A나 외국인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음.

다. 정부주도 구조개혁의 한계

■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회계관련 투명성 제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수익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 정부주도의 구조개혁은 시장원리에 벗어난 사업교환방식의 추진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개혁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였고,

- 정책수행에서 있어 일관성 및 투명성이 공고하지 못하여 외국인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했으며,

-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증시가 침체되어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BIS비율과 같은 획일적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간접금융시장도 선순환구조를 갖지 못했으며,

- 경제주체들에게 개혁피로감(reform fatigue)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으로 인해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지를 외국인투자가와 시장참여자들은 의심하고 있음.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가. 정부주도로부터 시장주도 구조개혁으로의 전환

■ 현 상황은 정부주도 구조개혁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개혁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부문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조속히 완결할 필요가 있음.

■ 시장자율에 따른 구조개혁은 단기적인 시장충격을 줄 수 있으나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임.

나.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

■ 단기경기조절에 거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거시경제목표를 4%대의 실질 경제성장률, 4%대의 물가수준, 4%대의 실업률로 완화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요망됨.

- 즉,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이행, 경제회복의 자생력 확보,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거시경제정책이 전환되어야 함.

-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은 양적인 측면에서 생산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고도성장으로부터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증가에 의한 적정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한편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투명한 구조개혁은 국내경제의 신용도를 제고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금리인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물가불안은 물론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환율상승을 유도할 것임.

- 또한 금년 말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여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노력은 불필요함.

다.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통화신용정책 : 현 정책금리 수준에서 안정적 운용 및 통화당국의 신뢰성 확보

- 현재의 정책금리수준을 유지하되, 경기급락이 나타날 경우에 탄력적 정책운용을 고려해야 함. 그 이유는

- 투자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차가 큼.

-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증시회복이나 신용경색 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업의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 상반기 물가상승요인이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공공요금 및 의약분업관련비용 상승 등의 비용측면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할 경우, 무리한 금리인하 추진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더욱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 : 근원물가 기준 3±1%)를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공표했고 5월 근원물가상승률이 4.7%에 달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음.

■ 환율정책 : 약간의 환율변동은 용인하되 구조개혁을 통한 환율안정 추구

-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시장개입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환율변화를 수용하되, 급격한 환율변동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현재의 엔화약세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환율상승은 용인하고 환율 및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함.

- 장기적으로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재정정책 :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

- 조세정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정책효과에 시차가 있어, 현재의 재정적자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는 의문이 제기됨.

- 재정의 상반기 집중 지출로 인해 대규모의 재정지출정책은 용이하지 않으나, 경기급락이 예상될 경우 정보화관련 사회간접투자 등 기초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재정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향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원, 의료보험재정 고갈 등에 공적자금의 추가적인 조달 가능성이 있고, 거시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국가채무 감축이 요구됨.

■ 노동시장정책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근로시간단축 및 모성보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여성의 고용을 저해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생산성에 의한 정규직 해고권한 부여, 유급 연월차 및 공휴일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급격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노동시장정책들이 결정되어야 함.

- 또한 실업대책으로는 현재의 실업률이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4%내외) 수준이므로, 단순취로사업 등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장기적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됨.

라. 기업과 정부는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노력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기업활동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은 제거하고 기업활성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기업 부문 :

- 기업의 R&D · 정보화 투자 활성화
- 첨단기술개발 및 상품화 노력
- 성장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의 기업전략 전환
-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기업퇴출제도 정착

■ 규제 부문 :

- 건전한 기업 및 금융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 기업 및 금융 관련법령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금융 부문 :

-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자금의 선순환구조 정착
- 은행의 소유제한 완화 및 책임경영 확립
- 직접금융시장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
-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자율화 확대

■ 노동 부문 :

-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실효성 없는 정리해고제의 개정
- 외국인투자 및 M&A 촉진을 위한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 폐지
-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확립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3/6	금융감독위원회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추진 •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신용대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취급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이를 반영하는 등 신용대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방안 ·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차주별·산업별 여신정보를 축적관리 · 신용평가결과 5등급이상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대출 취급원칙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함과 아울러 여신금액, 여신기간, 여신금리 등 여신정책의 주요 요인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토록 차등운용 유도 · 분식회계, 재무구조 취약 등 차주의 당면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주와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유도
3/23	금융감독위원회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및 하나로종금 등 5개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이전방식에 의하여 전액출자하여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한빛은행 등 5개의 자회사와 9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게 됨. • 향후 동회사는 편입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여 건전경영기반을 확보 · 한빛은행 등 4개 은행은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하고 BIS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는 수준까지 공적자금 투입 · 하나로종금에는 충분한 규모의 부실채권충당금을 적립하고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전성을 제고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3/24	금융감독위원회	투신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2001. 4. 1 시행) • 투신운용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로 하고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기준에 반영 •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으로 자본적정성부문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혹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 경영개선요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혹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 경영개선명령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될 경우
4/2	금융감독원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 간소화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청산인·파산관재인도「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직접 추천토록 하는「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
4/27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편 ·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을 강화 ·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위험산정 인정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화 • 증권사 영업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 마련 •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을 종전의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4/27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금년중 최대 15조원 보증 예정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보증의 보증대상 기관으로 일반금융기관 이외에 투자조합을 지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의 면책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보증업무 취급을 유도 • 체계적인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마련
5/3	행정자치부	올 과표 적용비율 0.4%p 상향, 종토세 부담 2.6% 증가 • 과세표준공시지가 적용비율 0.4%p 상향 : 31.8%(작년) → 32.2%(금년)
5/8	금융감독원	M&A 사모펀드 세부운영방안 발표 • 운영주체 ·직접운용 : 펀드이사회가 선정한 운영이사 직접운용 ·간접운용 : 운영이사가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 • 5%룰 ·특정기업 지분 5% 취득시 보유목적 밝혀야 함. ·보유목적이 M&A일 경우 : 취득분은 6개월 동안 매각 금지 • 기타 ·M&A펀드 투자대상 :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유동성 자산 ·최초 펀드설정시 투자자수 : 50인 미만
5/23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확정 • 양도세 감면 ·구입후 5년내 매도 때 면제대상 주택 : 2002년 말까지(계약기준)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업자 보존등기 때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 50% 감면 ·입주자 이전등기 때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 25% 감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5/23	정부	• 주택구입자금대출 · 생애 첫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를 연리 6%,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 • 건설산업구조조정 ·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 · 3년 단위로 등록갱신을 의무화 ·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말소 ·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형공사의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 · 꾸준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는 가산점을 부여
5/31	재정경제부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 • 공정거래부문 ·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기간 연장 · 신규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예외인정 · SOC 민자사업출자의 적용제외 ·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 예외인정 ·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 예외인정 · 화의 및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 98.1.1~2001.3.31기간중 이루어진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의 기산일을 구조조정과 같이 2001.4.1로 적용 ·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금융부문 · 기업현지금융 보증지원 ·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개선 · 외화자금 융자대상 완화 ·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초과 해소기한 연장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치 완화 ·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계열소속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완화 ·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 · 대외채권 회수의무규제 완화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5/31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투자비율제한 완화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제폐지 ·은행의 BIS비율 자기자본비율 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위임 ·금융기관종사자 위축방지 • 세제부문 ·90.1.1이전 법인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완화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정보기술제품 역관세 시정 ·지방세 서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 축소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총괄납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개선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 노동 및 기타부문 ·신축적 거시경제정책 수립 ·적극적 신시장 개척 ·통상마찰 대응체제 구축 ·IT부처 업무영역 조정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 년 동 기 대 비 (%)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6.7	-7.4	6,723	-11.7	-0.4	-21.2	-38.8	-10.1
1999년	10.9	21.0	8,551	11.0	1.3	3.7	36.3	-10.3
2000년	8.7	15.4	9,628	7.1	1.3	11.0	34.3	-4.1
1998년3/4	-8.1	-9.5	-	-12.5	-0.2	-22.4	-40.4	-11.6
4/4	-5.9	-4.2	-	-9.2	-1.1	-18.3	-28.0	-13.9
1999년1/4	5.8	10.0	-	7.9	0.6	-4.6	11.6	-13.5
2/4	11.2	20.9	-	10.9	1.7	4.2	35.6	-8.8
3/4	13.0	26.2	-	12.4	1.1	6.7	47.0	-9.5
4/4	13.0	26.4	-	12.8	1.7	7.2	53.0	-9.9
2000년1/4	12.6	22.3	-	10.8	1.5	21.9	62.6	-6.8
2/4	9.7	16.9	-	8.9	1.1	13.2	41.6	-4.2
3/4	9.2	17.7	-	5.7	0.5	10.5	31.9	-3.5
4/4	4.6	6.5		3.2	1.8	1.6	8.1	-2.5
2001년1/4	3.7	4.3		0.9	-2.6	-3.7	-7.9	1.4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 보유액[1]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3.7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44.8	740.5	1,145.4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6.0	110.4	962.0	1,259.7
2000년3월	144.3	23.8	142.1	52.7	9.4	2.6	836.5	1,108.3
4월	135.2	17.6	133.5	46.6	5.3	-5.5	846.1	1,110.3
5월	146.4	28.1	132.8	40.5	18.6	15.7	868.2	1,133.8
6월	152.5	19.0	131.8	29.2	22.1	17.1	901.8	1,114.8
7월	144.6	23.0	136.7	39.8	12.7	10.4	903.5	1,116.2
8월	147.9	30.1	134.4	36.4	17.9	9.0	914.3	1,108.8
9월	151.3	26.5	132.9	31.3	23.5	17.2	925.3	1,115.0
10월	152.5	13.4	141.0	24.2	13.7	10.2	927.0	1,136.7
11월	149.9	5.6	141.6	20.7	11.0	10.6	933.4	1,195.3
12월	149.8	0.1	141.8	4.7	17.0	12.4	962.0	1,259.7
2001년1월	126.5	4.0	124.4	-1.2	3.6	5.6	954.2	1,265.5
2월	133.3	5.1	126.7	5.4	11.0	7.0	953.3	1,245.7
3월	141.4	-2.0	129.2	-9.1	20.8	18.1	944.4	1,328.0
4월	121.8	-9.9	120.0	-16.1	13.5	6.4	934.8	1,324.7
5월	136.3	-6.9	115.6	-13.0	-	-	936.3	1,292.9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 가[2]		실업률	제조업	통화[3]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6.3	13.39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13.9	14.99	406.1
1999년	-2.1(0.9)	0.8(1.4)	6.3	14.9	27.9	11.3	8.86	806.8
2000년	2.0(1.7)	2.3(3.2)	4.1	8.6	30.3	5.6	9.25	734.2
2000년 3월	2.4	1.6	4.7(4.1)	4.6	27.2	5.0	10.00	878.4
4월	1.9	1.0	4.1(4.0)	11.2	29.6	5.0	9.97	779.8
5월	1.2	1.1	3.7(3.9)	7.9	33.6	5.0	9.91	720.8
6월	2.6	2.2	3.6(3.8)	7.1	36.3	5.1	9.72	795.1
7월	2.9	2.9	3.6(3.7)	12.4	37.8	4.9	9.13	794.1
8월	2.5	2.7	3.7(4.1)	19.4	34.9	5.3	9.00	720.4
9월	2.5	3.9	3.6(4.0)	2.5	30.4	6.2	9.00	622.9
10월	1.8	2.8	3.4(3.9)	10.4	28.3	6.7	8.72	548.1
11월	1.3	2.6	3.6(4.1)	7.4	25.5	6.6	8.41	544.1
12월	1.7	3.2	4.1(4.0)	1.4	24.5	6.7	8.12	526.4
2001년 1월	2.3	4.2	4.6(4.1)	28.6	25.9	8.2	7.76	585.0
2월	2.4	4.2	5.0(4.2)	-4.6	20.4	8.4	6.79	593.6
3월	2.8	4.4	4.8(4.2)	8.6	18.1	7.9	7.16	543.9
4월	3.3	5.3	3.8(3.8)	-	15.7	-	7.91	530.3
5월	3.4	5.4	3.5(3.6)	-	15.3	-	7.70	600.7

주 : 2) ( )는 전년말월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4]	국내기계 수주[5]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축허가면적 전체	건축허가면적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7년	4.7	79.2	3.2	-1.6	3.3	-6.4	5.4	-	-0.4	2.6
1998년	-6.5	68.0	-12.7	-21.0	-31.0	-37.7	-42.6	-	-55.0	-50.3
1999년	24.2	76.5	13.0	21.1	30.9	43.5	0.8	1.2	42.3	43.2
2000년	16.8	78.3	9.8	6.4	11.7	30.1	15.1	-3.1	11.8	-7.4
1999년 12월	24.6	80.6	14.9	20.1	13.6	69.9	8.9	-3.1	172.3	200.9
2000년 3월	17.8	79.4	13.5	13.5	16.0	51.2	55.7	-3.2	108.4	87.2
4월	17.0	75.8	12.2	16.6	26.7	40.9	-4.4	-6.6	110.1	91.0
5월	20.3	79.6	15.8	19.8	12.0	33.3	18.8	1.1	-9.3	-30.4
6월	18.0	81.1	11.8	4.3	-10.0	30.4	31.9	-1.8	25.2	11.4
7월	19.5	80.6	8.4	1.1	17.6	30.4	12.7	-0.3	32.6	27.3
8월	24.8	81.5	9.2	2.4	4.7	39.2	43.0	-2.6	55.0	64.7
9월	15.2	77.7	6.4	-8.3	-1.1	19.2	-18.4	-6.1	16.0	-5.2
10월	11.7	76.0	5.3	-0.2	-4.9	22.2	-16.8	-0.7	-7.5	-19.4
11월	6.5	75.2	4.0	1.0	15.2	-1.1	-7.5	-2.9	-23.1	-42.9
12월	4.7	73.9	2.3	-6.2	41.7	-2.2	0.7	-0.1	-56.7	-64.8
2001년 1월	0.1	73.9	2.2	-10.6	-14.5	-9.2	-32.1	-0.6	2.7	-8.1
2월	8.8	74.9	1.6	-4.8	2.8	-4.9	-14.6	5.8	-4.8	-32.7
3월	6.4	74.9	3.6	-8.3	19.9	-5.0	-27.2	0.2	-29.5	-33.0
4월	5.7	74.6	3.9	-1.2	-11.8	-5.7	0.0	3.4	-17.6	-19.3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1년 6월 27일
1판1쇄 발행/2001년 6월 29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원